

충청권 제1 포교도량으로

충북불교문화회관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3월 개강 선방·다원·아트홀 열고 주민의 열린 공간으로

1995년 건립돼 충청지역 포교의 중추로 기대를 모았던 청주 충북불교문화회관(이하 불교회관) 그러나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회관건립의 주역이자 선학원 이사장이던 정일 스님 입적 후 다소 혼란스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다. 1년여가 지난 2005년 12월, 불교회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현문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다. 불교회관이 추진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충청지역 포교의 중심지로 자리잡겠다는 것이다. 불교회관은 다원, 어린이집, 아트홀, 법당, 시민선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주불교방송이 들어서 있는 충북불교의 대표적 포교도량. 불교회관은 우선 불자교육에 역점을 두

기로 했다. 교양대학이었던 광명불교대학을 조계종 인가 정식 불교대학으로 개편한다. 이미 조계종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내년 3월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불교대학 동문회도 결성했다. 120여 동문들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기법회를 갖는 것은 물론 지역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포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불교회관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추진된다. 우선 시민선방을 개원하고 법당을 지역 신행단체에 개방해 회관을 수행과 수행도량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광명다원(맛집)을 리모델링해 불자들과 지역민들을 끌어

들일 계획이다. 특히, 충북불자교수연합회 등 지역의 영향력 있는 신행단체들에게 회관 내 법당을 수행도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불자들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다. 불교회관 내 어린이집도 프로그램을 강화해 세속포교에 적극 나선다. 1달(또는 1주일)에 한 번씩 원생들을 법당으로 초청해 불교와 친숙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센터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교회관은 기존의 프로그램 외에 장례문화나 호스피스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불자들의 활동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교회관 주지 현문 스님은 "회관 관련 계획도 추진된다. 우선 시민선방을 개원하고 법당을 지역 신행단체에 개방해 회관을 수행과 수행도량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광명다원(맛집)을 리모델링해 불자들과 지역민들을 끌어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동화사·고운사 신년 사업계획 마련

동화사 한문교류 다각화 등 고운사 禪체험장 건립 논의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가 올 상반기에 대구 동구 신무동에 노인실비요양시설을 착공하고, 성보박물관을 개원한다. 총 사업비 13억 4천만원에 들어 건설되는 노인실비요양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80평 규모로 지어진다. 통일 대불전 아래 3층 규모로 마련된 성보박물관은 현재 내부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2개의 전시관과 수장고 교육관이 갖춰져 있고, 1층 교육관에는 시청각실도 들어선다. 동화사는 이외에도 풍골에 유적원과 인쇄소를 건립하는 등 사단법인 한문불교교류협회(총재 지성)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의성 고운사(주지 혜승)도 수월암 복원과 선 체험장 건립 등 2006년 사업 계획을 밝혔다. 고운사는 30억의 예산을 투입해 2007년까지 108평 규모의 선 체험장을 마련한다. 고운사는 선체험장이 마련되면 재가자들의 수련공간이나 선 수행공간으로, 또 스님들을 위한 특강 장소로 활용하고, 조실 스님을 모시고 실질적인 간화선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간화선 중흥에 일조할 계획이다. 고운사의 내년 사업계획중 인터넷 서버

구축 사업도 논의를 끈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고운사 본말사의 열악한 포교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나의 서버에 본말사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고 게시판도 통합 운영한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포교전진대회' 개최 광주전남 포교사단



광주전남 포교사단(단장 김인수)은 12월 16일 광주 무등파크에서 '제2회 포교사 포교전진대회' (사진)를 개최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앞서 전방원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에는 각 사암 포교국장 스님들과 양성종 중앙 포교사단장, 이상진 광주전남신도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진대회에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초발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어 전방의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김인수 단장은 인사말에서 "남을 포교하기 앞서 자신을 포교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실천행으로 포교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소년소녀 가장에게 희망을 광주 한마음선원 성금 기탁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지난 12월 23일 광주시청 시청실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성금 2500만원에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사진). 이날 혜월 스님은 기금 전달에 앞서 "소년소녀 가장들은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다"며 "불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으로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인사말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기위해 정성을 모은 불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성금 전액을 고제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게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광주지원이 지난 11월 27일 소년소녀 가장돕기 불교합장제를 개최해 모금한 것이다. 광주지원은 1997년부터 5회에 걸쳐 8000여만원을 모금해 불우청소년 280여명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준엽 기자

"산사에서 ★키워요" 범어사 소년소녀가장 위한 희망 템플스테이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희망 실천 템플스테이가 부산 범어사주지 대에서 열렸다. 1월10~11일, 1월 14~15일 2차에 걸쳐 진행되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희망 실천 템플스테이는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 소년소녀 가장 100명을 대상으로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진행된다.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딱딱한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스님과 함께 하는 웃음이, 금정산 고당봉 산행, 불무도, 컵 만들기, 차담 등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 도 참선, 사찰예절 배우기, 발우공양 등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혜수 스님은 "겨울 산사에서 보내는 1박 2일이 아이들이 생활 가운데서 긍정적인 마음을 쓰면서 살 수 있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는 일년 내내 템플스테이를 상설 운영하며, 2006년 1월, 불무도 템플스테이, 정월대보름, 참선 등 대상과 주제별 템플스테이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개인이나 가족, 회사, 단체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중이다. (051)508-3123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서울 대종사 2주기 기념 추모제·탑비 제막



추모제 이후 대중들이 서울 스님 사리탑을 돌아보고 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두백은 지난 12월 20일 대웅전에서 '서울 대종사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서울 스님 열반 2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성수, 환안, 천운, 혜정 스님 등 조계종 원로의원, 백양사 주지 두백, 송광사 주지 영조, 대종사 주지 몽산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 문중 스님, 재가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법어에서 "서울 큰스님은 백양산을 덮은 하얀 눈처럼 티 없이 고고하게 정진하셨던 이 시대를 큰 스승이었다"며 "큰 스님의 뜻을 이어 발심수행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원로의원 성수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큰 스님이 제방의 선원에서 보인 치열한 구도 행은 오늘을 사는 수행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계몽 없이 정진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양사는 추모제에 이어 새로 조성된 서울 스님 진영을 조사전에 이송하고 부도전에서 서울스님 부도와 사리탑비를 제막했다. 이준엽 기자

용호복지관, 봉사자들 시상



용호복지관(관장 혜총)과 양정재노인복지센터(관장 혜총)는 12월 19일 부산 문화회관 영빈관에서 2005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용호복지관장 혜총 스님, 이준성 용호복지관 부관장, 양정재노인복지센터 김영근 소장을 비롯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온 봉사자와 후원자 3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양정재노인복지센터 후원을 해 온 조옥순씨를 비롯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해 온 주식회사 유림건설 노인주간 발달사 지 봉사자 장경애씨와 용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해 온 황남숙씨, 노인주간 봉

사 활동을 해 온 신진희씨, 가정방문 봉사원으로 활동해 온 최명금씨, 홍종임씨, 청소년 봉사 동아리 동아리하나, 3대가 후원을 함께 해 온 박이소 가족 등이 공로패를 받았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공로패 시상에서 자원봉사자 사예 발표 시간에는 용호복지관에서 방문목욕 봉사를 펼쳐온 이경수씨, 가정방문봉사를 해 온 권기숙씨가 자원봉사에서 느낀 보람과 기쁨을 발표했다. 천미희 기자

계룡산 살리기 본격화 대전충남지역 연합기구 구성

12월 22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를 2017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종교시민단체가 연합기구를 구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계룡산 살리기 대전충남연대'(공동대표 장국 등, 이하 계룡산 연대)는 12월 20일 60여개 종교시민단체로 조직을 구성하고 '계룡산 관동 반대' 전국 순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계룡산 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관내 불우이웃에 쌀·김치 전달

노숙자 쉼터인 부산 '보현의 집'(원장이기표)은 12월 23일 북한동 관내 불우이웃 50세대에 각각 20kg 쌀 1포와 부산 보현의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 10kg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부산 보현의 집은 하루 전인 12월 22일 입소자들이 농경지 경작을 통해 직접 생산한 20kg 쌀 100포를 동래구 관내 불우이웃 100세대에 전달했다. 이기표 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처에서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 불우한 이웃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입소자들의 뜻과 정성이 가득한 쌀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칼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대비법 요/배개
원인모름 오관통증 주무시 면서편 인하게 치료완
02)782-0022
"강제로 인한 신경과민과 기력이 쇠약해져서 항상 맑은 잠에 시달리던 것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10수년 넘게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던, 극심한 불면증/고혈압에서의 탈출, 밤새 폭-자는 거조, 그야말로 수면입니다."
"관절염 이 심해 정상 생활이 불가능 했어요. 배개속을 쓰고부터 이어서 깨어나는 일 없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두통과 요통 이 다 사라져 수년간 무릎과 어깨 관절염 제 몸이 날아갈 듯 시원합니다."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 대본산 용주사



주 지 정 락
부 주 지 성 직 명 호
총무국장 영 명 호 무 진 은 정 오
기획국장 성 성 등 도 정 오
교무국장 성 성 등 도 정 오
재무국장 성 성 등 도 정 오
사회국장 성 성 등 도 정 오
포교국장 성 성 등 도 정 오
호법국장 성 성 등 도 정 오

대 중 일 동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번지
전화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곡사



주 지 진 각
대 중 일 동

http://www.magoksa.or.kr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마곡사
전화 041)841-6221, 수련원 041)841-6226 / 팩스 041)841-6227